

독립기념관

08

독립정신과 민족의 얼, 무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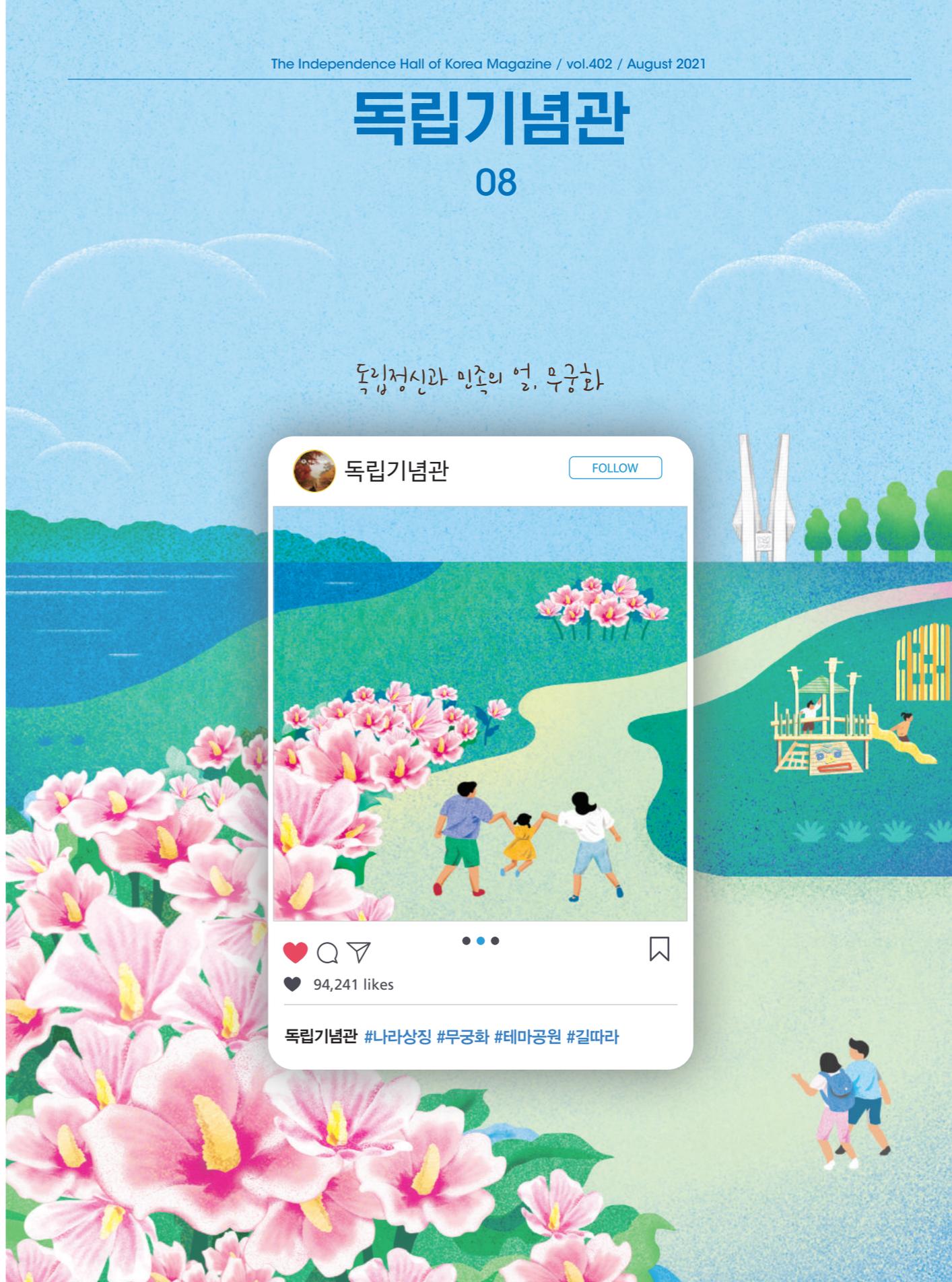
#광복절 #무궁화 #민족정신

독립기념관에 무궁화가 만개하였습니다.
무궁화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진 요즘,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활짝 핀 무궁화를 보니
나라사랑 애국정신이 저절로 피어났습니다.
보낸 이, 최영일

2021년 월간 독립기념관 표지는
독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습니다.
독립기념관과 관련된 추억이나 풍경의 기록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예쁜 일러스트로 표현해 드립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월간 독립기념관을 웹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FOLLOW









94,241 likes

독립기념관 #나라상징 #무궁화 #테마공원 #길따라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1 August Vol. 402

08



Coverstory

영원히 피고, 피어서 지지 않는 꽃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무궁화는
일제강점기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곁의 속에 무궁화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간직한 무궁화의 의미를
8월 광복의 감격과 함께 아로새기면 좋겠습니다.

일러스트: 이신혜 작가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품)

※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i815.or.kr

발간등록번호 11-8551001-000092-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 천안라00001

발행일 2021년 8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한시준

편집인 신용관
편집장 신하윤(sunny@i815.or.kr)
편집위원 고명재, 권동운, 오세호, 이봉근, 이정희, 정경민, 정현희,
홍동현, 홍일교

思 생각

04 들어가며

태극기가 바람에
펼려입니다

06 톺아보기

태극기의 유래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10 만나보기

태극기 속 다섯 영웅



人 인연

14 이달의 독립운동가

일장기 말소로 표현한 마라톤 우승의 감격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우다

18 아름다운 인연

역사를 통해 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을 일깨운
신채호와 박자혜 부부

22 인문학관

지지 않는 별
항일 시인 윤동주

24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과 의미



通 소통

26 독립의 발자취

수원 산루리의 독립 영웅을
추모하며

30 세계 산책

자유·평등을 향한 끝없는 투쟁
프랑스 혁명

32 기념관은 지금

울릉도·독도를 만나다

36 기념관 소식

38 독자 참여



상징

건곤 감리 청홍백 건곤 감리 청홍백
태극기가 바람에 펨럭입니다.
저 하늘높이 외로이 서서 오늘도 쉬지 않고
비가와도 곳곳하게 바람에도 씩씩하게
오늘도 힘차게 펨럭이며 힘을 내라고
여름더위 참아내고 겨울추위 이겨내고 용기 내라고
저 하늘높이 외로이 서서 내일도 쉬지 않고 펨럭이겠지.
손에 들고 흔들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라사랑하는 마음 온 땅에 넘치네.
아름다운 태극기 펨럭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펨럭입니다.

3·1운동 100주년 창작곡 <태극기가 바람에 펨럭입니다>



태극기의 유래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일제는 태극기 게양 자리에 일장기를 게양하고 태극기 유래까지 조작하여 말살하려 했지만 태극기를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정신력과 독립운동의 원동력은 꺾지 못했다. 오히려 국권을 상실해 분노한 대한의 국민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승화하여 독립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감은사지 금당 석재에 새겨진 태극 문양



경북궁 근정전 계단의 태극석



신덕왕후 묘 병풍석 태극 문양

태극기의 시초

지구촌의 나라 국기는 올림픽 참가 기준으로 206개이다. 세계의 국기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삼색 줄과 십자형 밑그림에 별·달·해를 넣어 제작하고 있어, 한데 모아 놓으면 비슷비슷하고 어느 나라 국기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국기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태극 문양과 4괘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계의 국기들 가운데서도 눈에 확 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태극기가 처음으로 제작되어 그 모습을 세상에 알린 것은 1882년 9월 25일이었다. 1882년 7월 23일에 발생한 임오군란을 긴급히 수습하기 위해 고종은 박영호를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임명하고 일본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고종은 국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운송하는 배 안에서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4괘를 갖춘 국기를 만들어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일제의 중앙지 신문 『시사신보』는 10월 2일자에 크게 보도하였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다.

조선이 국기를 만들려고 하자 청나라에서 마견총을 사신으로 보내 청룡기를 국기로 만들어 사용할 것을 간섭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절대로 청나라 것을 따라 하지 않겠다 선언하였고, 태극 문양에 4괘를 그려 국기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고종의 지시에 따라 박영호는 국기를 처음으로 만드는 일이라서 일본이 제공한 메이지마루호를 타고 가던 중 함께 간 서광범, 김육균, 김만식, 영국 영사 아스톤, 선장 제임스와 논의해 태극기를 만들었다. 맨 처음에 논의할 때는 태극 문양에 8괘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고종이 지시한 대로 건곤감리 4괘만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최초의 태극기가 탄생하였고, 9월 25일 고베에 도착한 일행이 니시무라야 숙소에 게양하였다. 박영호가 수신사로 일본에 머무른 동안에 일본, 영국, 미국, 벨기에, 청나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외국의 공사들은 “태극기 모양이 너무 독특하고 예뻐서 크게 감탄하였다”며 그 모양을 그려갈 정도였다고 한다.

박영호 수신사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후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현 외교부)에서 “국기를 이미 제정하였으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알리어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는 곧 받아들여져 공포되었다. 여기서 ‘국기를 이미 제정하였다’는 뜻은 고종의 지시에 의해 박영호 수신사가 1882년 9월에 만들어 사용했던 것을 말한다.

태극기 말살 정책

태극기가 국기로 정해지고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되기도 전,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강탈한 경술국치로 태극기도 함께 말살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칙령 19호에 의해 일장기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휴일이나 기념일에 일장기를 게양하도록 함으로써 태극기를 말살하려 들었다. 황실에 망신을 줄 요량으로 황실 축제일에도 일장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대한제국의 존재를 없애려 하였다. 1927년에는 국기게양설비신설 명령을 보내 전국의 형무소와 관공서에 높이 18미터 국기게양탑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관공서와 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고, 전국 곳곳에 일장기를 게양하도록 하여 태극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하였다. 심지어 깊은 산속 사찰에까지 일장기를 보급해 게양하도록 강요했다.

국민들 기억 속에 태극기 모양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일제의 눈을 피해 몰래 만든 태극기의 모양이 만드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이었다.

그러다 광복이 된 후 1949년에 이르러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정식 국기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와중에 태극기가 48종류나 등장해 어느 모양이 진짜인지 고르는데 애를 먹었다. 태극 문양의 배열과 4괘의 위치, 색깔과 크기가 모두 달랐다. 태극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였을 텐데 그 지경이 된 것은 일제 36년 동안의 태극기 말살 정책 때문이었다. 결국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8종류 중에 하나를 선정하였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1949년 10월 15일에 현재와 같은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였다.

일제의 태극기 음모론

한때 ‘태극 문양의 태극기가 중국 것이다’라고 헛소문이 퍼진 적이 있는데, 이는 일제가 퍼뜨린 태극기 음모론 때문이었다. 태극 문양의 기원은 신라 682의 경주 용당리에 감은사(현재는 감은사지)의 금당 석재에 새겨진 신비의 문양이란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감은사 태극 문양은 음양의 머리에 눈이 없는 것으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의 궁궐 계단과 왕릉의 병풍석에 새겨 위엄을 높여 왔다. 지금도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의 회암사지와 경북궁 근정전 계단, 창경궁의 명정전 계단, 동구릉의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정자각 계단과 여러 왕릉의 병풍석에 또렷이 남아 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태극기의 중심 도안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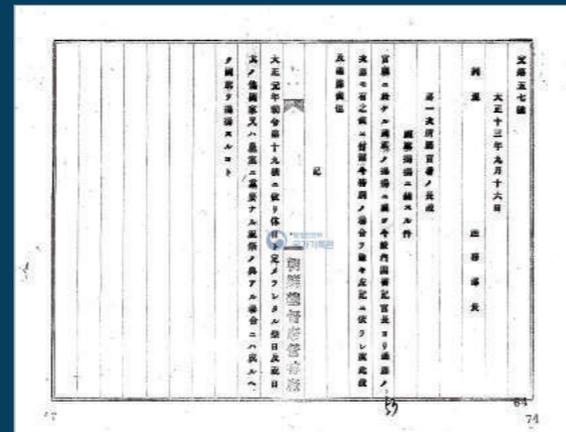
반면에 중국의 태극 문양은 기원과 문헌조차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모양에서도 우리나라 태극 문양과는 달리 음양의 머리에 눈이 박혀 있어서 우리의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청나라 이홍장이 쓴 문서 『통상장성안취편』의 대청국속고려국기를 보고 만든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으나 그것은 1886년의 일로써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기를 제정·반포했던 1883년 3월 6일보다 훨씬 지나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태극기는 일제의 모진 말살과 음모론에도 굴하지 않고 국권을 상실한 시대에 살았던 국민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승화하여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계기로 17세 태극기 소녀 유관순 열사의 처참한 순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국내는 물론 상하이에서 미국에서 만주에서 항일운동의 힘과 격려와 교훈이 되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광복군이 일제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순간까지도 당당하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태극기 정신 때문이었다. 이러한 태극기 정신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모진 말살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마주하게 하였다.

태극기 말살을 위한 조선총독부 칙령 19호



태극기 변천도

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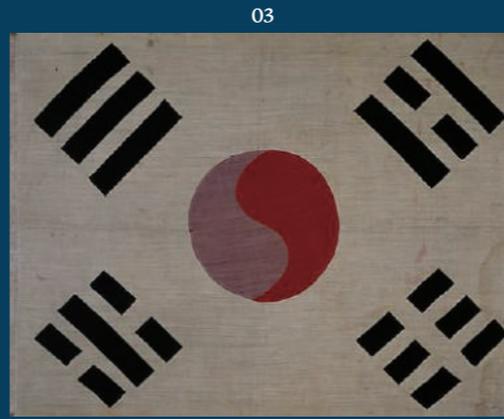
박영효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1882)

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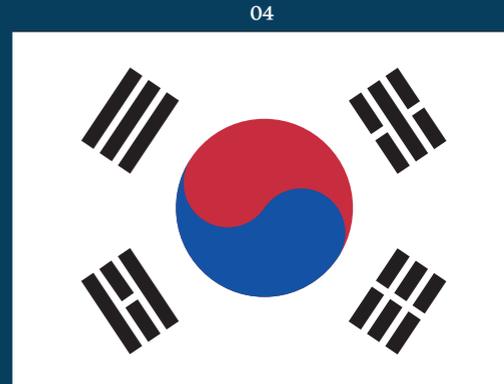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1890)

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19-1949)

1949



태극기는 1949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정식 국기로 선정되었다.



청나라의 국기, 삼각 황룡기. 청나라는 조선에게 황룡기를 변형해 국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껏 이어져온 태극기 변천사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모양일지라도 저마다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가장 오래된 태극기를 기증한 인물 데니와 대한제국 때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항일운동의 상징이었던 네 점의 태극기와 관련 인물들을 소개한다.

툰아보기 속 인물 살펴보기

태극기 속 다섯 영웅



데니 태극기(국가등록 제382호)

데니와 데니 태극기

태극기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데니 태극기'이다. 그도 그럴 것이 1882년 9월에 제작해 사용하였다는 최초의 태극기 실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금으로선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인 데니(O.N. Denny, 1838~1900)는 외교 고문으로 1886년부터 1890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1886년 5월 3일 청나라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프랑스와 통상조약, 러시아육로통상조약 체결, 거문도 무단 점령 영국 극동함대 철수 등 많은 외교적 활동을 하였다. 또한 『청한론』을 발행하여 조선의 통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한 청나라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1890년 데니가 4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고종은 태극기를 만들어 선물하였는데, 이를 데니의 후손이 1981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한 것이다. 1882년 박영효가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는 태극기로부터 불과 7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최초의 태극기도 데니 태극기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큰 태극기이다. 데니 태극기는 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이다.

고광순 의병대장과 불원복 태극기

고광순(1848~1907) 의병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순절했던 고경명 의병장의 12세 손이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명성황후 시해자를 처단하기 위해 각 읍에 격문을 띄우고 의병을 불러 모아 서울로 가던 중 조정에서 파견한 선유사(宣諭使)의 권고로 애석하게도 의병을 해산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의병 활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1905년부터는 을사늑약 무효를 주장하며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4월 최익현 선생이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으나 최익현 선생이 이미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뒤였다. 1907년 1월에는 독자적으로 담양군 창평에서 부대를 조직하여 항일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비장한 각오로 지리산 연곡사에 본영을 차리고 항일의병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멀지 않아 나라를 되찾는다'는 의미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를 만들어 부대 입구에 게양했다. 의병들은 그 태극기를 보면서 반드시 일제를 몰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첩보를 입수한 일제는 1907년 10월 15일 군경 합동 중포대



고광순 초상화



불원복 태극기(국가등록 제394호)

대를 이끌고 야간에 연곡사를 급습하였다. 고광순 의병대는 치열하게 대항했으나, 의병의 무기로는 일제의 대포를 제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제 중포대대는 연곡사를 점점 조이면서 불을 질렀다. 고광순 의병대는 불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새벽 모두 불길에 처참하게 순절하고 말았다. 시신은 인근 마을 사람이 임시로 묻어두었는데, 며칠 후 매천 황현이 수습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고광순 의병장은 일제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의병활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원복 태극기는 국가등록문화재 제394호로 등록되었다.

배설과 배설 태극기

영국인 베델(1872~1907)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1904년 3월 데일리메일의 특파원 자격으로 대한제국에 왔다. 베델은 영국 공사의 안내로 광무황제를 알현하였는데, 특별한 환대와 함께 '배설(裵說)'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이때부터 배설이란 이름을 썼고 일제의 침략을 낱말이 취재하여 본국 신문을 통해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그해 7월 18일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언론을 통해 대한제국을 집어 삼키려는 일제의 만행을 널리 알

리기 위해서였다. 태극기를 손수 만들어 영국기와 함께 나란히 사장실에 게양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학부대신 이완용, 상공부대신 권중현, 내부대신 이지용, 외무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등 을사5적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과 조선통감부 설치를 담은 을사늑약에 찬성 표를 던졌지만, 배설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세계 언론에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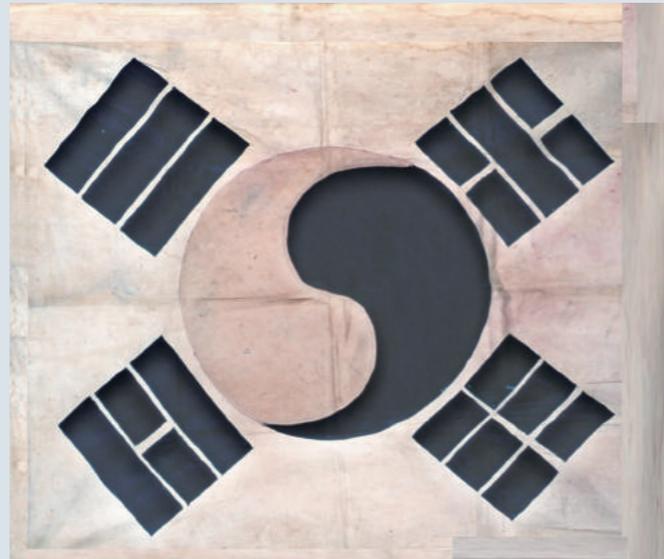
배설의 언론 활동은 일제가 볼 때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영국 정부에 배설의 언론 활동이 동맹국으로써 해를 끼친다고 압력을 넣었고, 서울에 설치된 영국 총영사관이 재판하도록 설득해 옥고를 치르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배설이 국제보상운동 의연금을 횡령하여 호의호식한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만신창이가 되도록 스트레스를 주었다. 이것도 모자라 온갖 무자비한 강압으로 배설과 양기탁을 대한매일신보사에서 몰러나게 한 후 통감부 산하 언론기관으로 만들었다.

배설은 옥고를 치르고 일제의 온갖 음모에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1909년 5월 1일 순절하였다. 장례식 날 양화진 외국인 묘지로 가는 운구 행렬에는 흰옷을 입은 조문객 1,000여 명이 구름처럼 뒤를 따르며 통곡하였다. 1968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신문에 게양했던 태극기는 국가등록문화재 제483호로 등록되었다.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한국명 배설)



배설 태극기(국가등록 제483호)



김구 서명문 태극기(국가등록 제388호)

김구와 서명문 태극기

김구(1876~1949)의 임시정부 국무회의 주석 시절이었다. 1941년 광복운동을 돕던 벨기에 신부 매우사(미우스 오그)가 미국을 간다고 하니, 독립운동자금을 호소한 글을 태극기 바탕에 친필로 쓰고 서명해서 주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김구

"매우사 신부에게 부탁하오. 당신은 우리의 광복운동을 성심으로 돕는 러이니 이번 행차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한인을 만나는 대로 이하 기구의 말을 전하여 주시오.

망국의 설움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인력·물력을 광복군에 바쳐서 강노말세인 원수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자."

절박했던 임시정부의 독립자금 사정과 일제를 타도하여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김구 주석의 애국정신이 글자마다 눈물겹다. 이 태극기는 안창호의 부인 이해련에게 전달되었다가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388호이다.

백초월과 진관사 소장 태극기

스님 백초월(1878~1944)은 1919년 11월에 의친왕과 함께 제2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백초월

1920년 무렵 진관사에서 수도를 하던 백초월은 마냥 이렇게만 있을 수 없다면서 항일운동을 결심하고, 일장기의 빨강 동그라미 위에 붓으로 덧칠한 태극기를 칠성각 벽체 속에 숨겨 놓고 홀연히 떠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장기에 덧칠하여 태극기를 그린 것은 반드시 일본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의미였다. 백초월은 1999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고, 그때의 태극기는 2009년 5월 칠성각 보수 작업 중에 발견되어 국가등록문화재 제458호로 등록되었다.

진관사 소장 태극기(국가등록 제458호)



일장기 말소로 표현한 마라톤 우승의 감격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우다



여운형(呂運亨)
1885~1947
경기도 양평
건국훈장
대통령장(2005)
대한민국장(2008)



송진우(宋鎭禹)
1890~1945
전라남도 담양
건국훈장
독립장(1963)



이길용(李吉用)
1899~미상
서울
건국훈장
애국장(1990)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우다
1936년 8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이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 등 한글 신문은 세계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한 ‘한국인’ 손기정을 강조하며 우승 시상식 속 유니폼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 때문에 신문이 정간되거나 관련 인사가 면직되었다.
올해 85주년을 맞은 이른바 ‘일장기 말소사건’은 일제의 언론 탄압이 거세지는 시점에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시켰으며 언론의 항일정신을 보여주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손기정(1936. 8. 9.)

최초의 일장기 말소 기사를 보도한 『조선중앙일보』 사장 여운형, 민족 여론을 대변하다
한글 신문들은 손기정의 승리를 한국인이 이룬 쾌거로 간주하여 민족 자부심을 높이는 사실과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가운데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8월 13일, 신문 가운데 최초로 일장기를 지운 사진과 함께 손기정 마라톤 우승 기사를 게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단결을 유도하였다.
한편 8월 25일자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기사가 일제에 의해 검열되면서 『조선중앙일보』 기사도 수사되어 신문 정간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선중앙일보』 사장 여운형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사 보도를 지지하며 언론인으로서 민족 여론 대변에 힘썼다. 정부는 여운형의 공훈을 기리어 2005년 대통령장·2008년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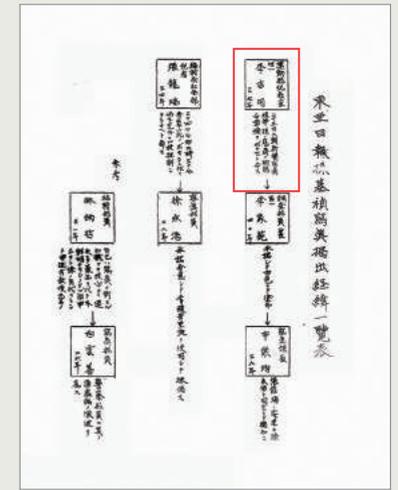
손기정이 친구에게 보낸 엽서(1936. 12. 8.). 손기정기념관 제공



『머리에 빛나는 월계관, 손에 굳게 잡힌 견모목』 『조선중앙일보』(1936. 8. 13.)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영예의 우리 손군』 『동아일보』(1936. 8. 25.)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동아일보 기자 취조 보고서』(1936. 8. 28.)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양정 환영의 밤’ 행사에 참가한 손기정과 여운형(1934.) 손기정기념관 제공

『동아일보』 기자 이길용과 사장 송진우, 일장기 말소 기사 보도로 민족의식을 드높이다

『동아일보』도 손기정의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맞아 일장기 말소 기사 보도로 민족적 기쁨을 표현하였다.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 이길용은 1936년 8월 25일 올림픽 활동사진 상영회 광고를 위해 올림픽 마라톤 시상식에 선 손기정 유니폼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사진을 흐릿하게 발행하는 등 일장기 말소를 주도하였다.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는 일장기 말소사건 직후 일제로부터 무기정간 통보를 받자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장직에서 면직되었다. 일장기 말소기사로 민족의식을 드높인 이길용·송진우의 공훈을 기리어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길용), 1963년 독립장(송진우)을 추서하였다.

“
제군은 비록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고 가지만
등에는 한반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베를린 올림픽 출전 선수 환송식에서 한 여운형의 환송사(1936)
”

* 말소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 없애 버림

일장기 말소로 민족의식 드높인 여운형·송진우·이길용



1

1936년 8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서 손기정이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였다.

2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 등 한글 신문은 세계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한 '한국인' 손기정을 강조하며 우승 시상식 속 유니폼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일장기 말소 사건'은 일제의 언론 탄압이 거세지는 시점에 민족 자부심을 고취시켰으며 언론의 항일정신을 보여주었다.



3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8월 13일, 한글 신문 가운데 최초로 일장기를 지운 사진과 함께 손기정 마라톤 우승 기사를 게재하여 민족단결을 유도하였다. 『조선중앙일보』 사장 여운형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사 보도를 지지하며 언론인으로서 민족 대변에 힘썼다.



4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 이길용은 1936년 8월 25일 올림픽 활동사진 상영회 광고를 위해 올림픽 마라톤 시상식에 선 손기정 유니폼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사진을 흐릿하게 발행하는 등 일장기 말소를 주도하였다.



5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는 일장기 말소사건 직후 일제로부터 무기정간 통보를 받자,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장직에서 면직되었다.

6

일장기 말소로 민족의식을 드높인 여운형·송진우·이길용의 공훈을 기리어 정부는 2005년 대통령장·2008년 대한민국장(여운형), 1963년 독립장(송진우), 1990년 애국장(이길용)을 추서하였다.



역사를 통해 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을 일깨운

신채호와 박자혜 부부

1920년 봄 연경대학 의예과에 다니던 박자혜는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의 중매로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신채호를 처음 만났다. 둘은 열다섯이라는 나이 차가 있었지만, 박자혜는 신채호의 인물됨과 독립을 향한 큰 뜻에 감명받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단재 신채호

주체적인 사관에 입각한 근대역사학 토대를 마련하다

단재 신채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언론인, 역사학자, 계몽활동가, 독립운동가, 아나키스트 등으로 성격 규정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단재야말로 ‘과학적 역사학’을 주장하며 우리 근대역사학을 수립한 역사가 아닐까. 그에게 역사 연구는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 침잠되는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시대적인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신채호는 수많은 독립투사들 중 박은식·안재홍·정인보·문일평 등과 함께 붓으로써 대쪽 같던 민족적인 절개를 지킨 실천적인 지식인이었다. 정치한 고증과 현장 답사로 생생하고 주체적인 민족사관 정립은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 첫걸음이었

다.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는 결론은 우리 역사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냉철한 역사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8·15광복은 독립군의 항전과 더불어 독립정신을 고취한 선각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에 앞장서다

1880년 12월 8일(음력 11월 7일)에 충남 대덕군 산내면(현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고령, 필명 금협산인·무애생, 호는 단재·일편단생·단생 등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8세에 본향인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로 이사하였다. 16세에 풍양 조씨와 결혼하여 아들을 두었으나 요절하였다.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성균관 박사로써 뛰어난 지적 능력을 발휘해 명성이 자자했다. 그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논설위원과 주필을 맡아 언론인으로서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일제 침략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는 식민당국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가시와 같았다. 많은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통한 민족의식 양양은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고 실천하였다. 신민회와 국제보상운동 등에 참여하는 동시에 1908년 한글로 된 『가정잡지』를 발행하였다. 또한 『대한협회회보』와 『기호흥학회월보』 등에 논설을 발표하는 한편 일진회 성토에 앞장섰다.

독립운동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다

1910년 4월 신민회 동지들과 협의 후 중국 칭다오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안창호·이갑 등과 향후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어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권업신문』에 많은 역사 관련 글을 남겼다. 신문이 강제 폐간되자 중국 동북지역(만주)과 백두산 등 한민족의 고대 활동 무대를 답사했다. 사적지를 돌아보던 단재는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역사서도 발간하였다. 돈이 없어 일본인이 파는 광개토태왕비 탁본을 가격만 물어보고 사지 못한 일화는 심금을 울린다.

1915년 중국 상하이로 활동 근거지를 옮겨 신한청년회

조직에 참가하면서 박달학원의 설립·운영에도 힘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의정원 의원과 전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성 임정 정통론과 이승만 배척운동 등 내분으로 사퇴하고 주간지 『신대한』을 창간해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과 맞서기도 하였다.

단재의 애국에 대한 일념은 이승만을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으로 인식한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완용 등 이른바 을사오적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우리나라를 찾기도 전에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란 말이오”라고 외치며 임시정부를 박차고 나와 외로이 독립투쟁에 전념하였다.

이후 비밀결사 대동청년단 단장, 신대한청년동맹 부단장 등에 피선되었다. 1923년에는 민중의 직접 폭력혁명으로 독립 쟁취가 가능하다는 『조선혁명선언』을 기초함으로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임시정부 창조파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옮겨 다물단을 지도하였다. 와중에 중국과 본국의 신문에 논설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였다.

무정부주의를 신봉하여 무정부주의 동방동맹에 가입해 1928년 잡지 『탈환』 발간에 앞장섰다. 동지들과 협의한 뒤 외국환을 입수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타이완으로 가던 중 지룽항에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위순감옥에서 복역 중에 1936년 2월에 갑자기 옥사하였다. 신채호의 유골은 위순감옥에서 순국한 뒤 화장된 채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후 청주로 운구되어 고향인 귀래리 옛 집터에 안장되었다. 1941년에야 한용운과 오세창 등이 묘표비를 세웠고, 2008년 5월에 영당 뒤 현재 위치에 묘역이 조성되었다.

단재는 독립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독립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그의 역사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고조선과 묘청의 난 등을 새롭게 해석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단재는 우리 역사에서 주체적이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을 비판하였다. 외세 의존적이고 굴종적인 인식에 대한 비판은 다음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단체 신채호 어록비(독립기념관 경내)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 조선이 되려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여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여는 도덕과 주의를 없다.”

‘아기나인’에서 간호부가 변신하다

박자혜는 1895년 12월 11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수유리(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중인 출신의 박원순이다. 일찍이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린 나이에 궁핍의 견습 나인으로 입궁해 10여 년 동안 궁중생활을 하였고, 일제의 강점으로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궁에서 나오게 되었다. 1911년 숙명여자고등

보통학교 기예과에 입학·졸업하고 조선총독부원 부속 의학강습소 간호부과를 입학·졸업하였다. 조선총독부 부속병원의 조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 이필주 목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이 병원 조산원과 간호원들로 조직된 간우회 회원들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병원에 부상 환자들이 줄을 잇자 치료하는 과정에서 민족적인 울분을 느끼는 동시에 야만적인 탄압에 몸서리를 쳤다. 3월 10일에는 비밀리에 간우회원들을 규합해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어 같은 병원 동료들과 열변가인 김형익 등의 한국인 의사를 규합하고 시내 국·공립 병원 직원들의 동조를 얻어 태업을 주도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병원장의 신병인도로 다행히 풀려났으나, 이로 인해 국내에서 활동이 어렵게 되자 중국으로 떠났다. 일제의 감시보고서인 『사찰취보』는 박자혜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평소 과격한 언동을 하는 언변이 능한 자’, ‘조선총독부 의원 간호부를 대상으로 독립만세를 외치게 한 주동자로 주목하고 있었다.’

단체와 부부이자 동지로서 인연을 맺다

박자혜는 베이징에서 연경대학(현 베이징대학 전신)의 예과에 입학하였다. 1920년 봄에 15세 연상인 독립운동가 신채호와 결혼하였다. 단체와의 만남에 대해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검푸르던 북경의 하늘빛도 날이 멀어져 가고 만화방초가 음산한 북국의 산과 들을 장식해주는 봄 4월이었습시다. 나는 연경대학에 재학 중이고 당신은 무슨 일로 상하이에서 북경으로 오셨는지 모르나 어쨌든 나와 당신은 한평생을 같이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매로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베이징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회영의 부인인 이은숙 여사였다. 이듬해 아들을 낳고 다시 1922년 둘째를 임신했으나, 경제적 궁핍으로 아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또한 베이징·텐진 등지의 독립운동가와 국내 인사들과 연락 임무도 있었다. 박자혜는 서울 인사동에 ‘박자혜 산파’를 개원하여 생계를 모색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을 산파에게 의

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매우 궁핍하였다. 결국 산파소는 일제의 감시와 방해로 사실상 문을 닫고 말았다. 『동아일보』에는 산파소 경영난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열 달이 가야 한 사람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아 산파소 간판을 달아 놓은 것이 도리어 남에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러니 아궁이에 불 때는 날이 한 달이면 사오일이라. (중략) 산파소 간판이 걸린 초가집 대문을 넘어 문턱에 들어서자 부엌도 마루도 없는 한 칸 방에 박자혜가 앉아있었다. 부인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기 어려웠다.”
풀 장사나 참외 장사 등 노점상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기르고, 동지로서 중국에 있는 단체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국내 지사들과 연락하거나 해외에서 밀입국해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도 도왔다. 1924년 정외부가 결성된 후에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정외부 요원이 국내로 파견되었을 때 보천교 북(北)방주 한규숙을 중개하였다. 1926년 12월에는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을 안내하는 등 독립지사들의 연락과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듬해 신채호와 베이징에서 재회해 셋째 아들을 출산하였다.
1928년 신채호가 일경에게 체포되니 책과 옷 등을 구입해 보내주며 옥바라지를 하였다. 때로는 휘순감옥에 있는 단체에게 하소연 섞인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 할 수 없으면 고아원에 아이들을 보내라”는 단체의 답장이 돌아왔다. 그리고 단체는 “‘국조보감’과 서양역사책을 사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책값이 50원에 달하는 거금으로 여사는 안재홍에게 부탁했으나 사서 보내지 못했다. 이후 편지는 거의 오지 않았다. 1934년 『신가정』 기자는 ‘부군은 옥중에, 신산(辛酸)한 새해맞이, 신채호

부인 박자혜 여사 방문기에서 당시 곤궁한 상황을 담담하게 밝혔다. 1936년 신채호가 옥사한 뒤 첫째 아들 신수범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경성실업학교를 중퇴하고 해외로 떠났다. 셋째 아들 신두범은 1942년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 홀로 셋방에 살던 박자혜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조국의 독립도 보지 못한 채 평생의 회한을 뒤로하고 1943년 10월 16일에 병고로 세상을 떠났다. 쓸쓸히 병사한 뒤 화장되어 한강에 뿌려졌다. 단재의 고향이 외롭게 돌아와 고향에 깃들었듯이 박자혜의 삶과 죽음 역시 그러했다. 단재의 묘소에는 부인의 위패만 묻혀있을 뿐이다.

『동아일보』에 실린 산파소 경영난 기사(1928)



지지 않는 별 항일 시인 운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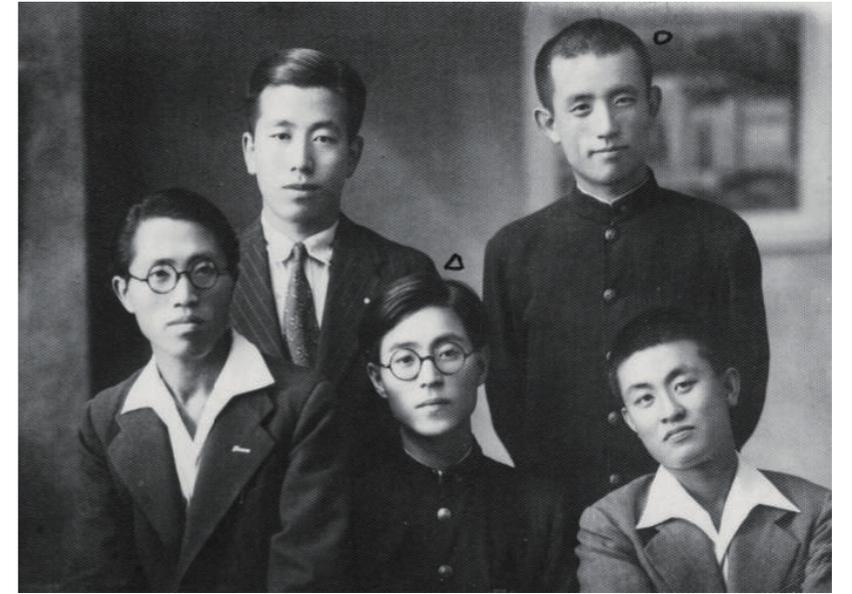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한국의 문학은 국내문학과 해외망명문학 등으로 나뉘는데, 그중 국내문학은 조선총독부의 언론 탄압과 감시에 의해 서서히 친일문학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런 와중에도 운동주는 순결과 자기희생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식민지 현실을 누구보다도 괴로워하였다.

어려서부터 고국에 대한 향수를 안고

운동주의 증조부인 윤재옥은 함경북도 종성에서 살다가 명동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이때 운동주의 아버지 윤영석이 독립지사인 김약연의 누이동생 김용과 결혼해 1917년 12월 30일 운동주를 낳았다. 할아버지는 기독교 장로였고, 아버지는 명동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운동주는 1925년 8세의 나이에 명동소학교에 입학하였다. 운동주의 일생에서 소학교 시절은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는 큰 기와집과 깊은 우물, 뽕나무밭과 과수원, 가랑나무가 우거진 기슭에 교회당이 있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의 생애 28년 중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소년 시절을 명동에서 보내며 기독교 신앙을 키워갔다. 그러기에 운동주 시의 출발은 종교적 신앙에서 오는 순결한 동심과 거기에 비치는 동포들의 궁핍한 삶에 대한 연민의 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소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한준명 목사는 “동주는 어린 시절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어쩌다 문답을 하면서 대답이 막힐 때면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나요”라며 “동주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고 밭이 많았어요. 말을 기르고 있어 외출할 때는 그걸 타고 다녔지요”라고 회고했다. 운동주는 고종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서울에서 발간한 월간 『아

이생활』과 『어린이』라는 잡지를 읽었다. 5학년이 되면서 송몽규와 함께 원고를 모아 『새명동』이란 신문 형식의 등사판 문예지를 만들어 동요 및 동시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1932년 운동주의 교육을 위해 가족들은 룡징으로 터전을 옮겼고, 그의 나이 14세에 캐나다 선교부가 설립한 미선스쿨인 은진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 그는 밤늦게까지 교내 잡지를 만드느라 등사 글씨를 쓰기도 하였고, 손수 재봉질을 하여 옷을 고쳐 나팔바지를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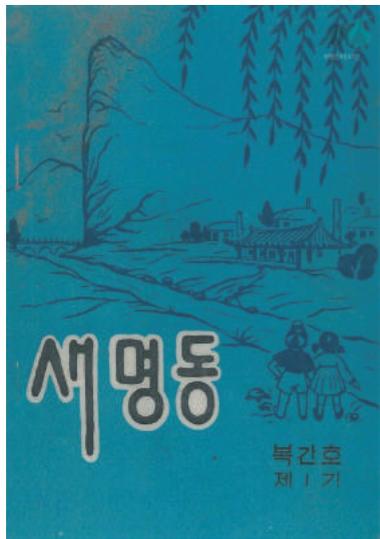
릿쿄대학 시절, 송몽규(앞줄 가운데)와 운동주(뒷줄 오른쪽)

광명의 제단에 타오른 촛불 하나

1934년 은진중학교 3학년 시절(17세)이었다. 그해 12월 고종사촌인 송몽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자, 이에 크게 자극을 받은 운동주는 ‘대기는 만성’이라는 각오로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때 쓴 첫 작품이 『초 한 대』였다. 운동주와 소학교·중학교 동기인 문익환 목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은진중학교가 있는 언덕 일대는 일본 순경이나 중국 관원들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대여서 우리는 그곳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애국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었고 무척 신났었다. 그러다 동주가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요한 1:15)’는 복음서의 말씀대로 역사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렸다.” 1935년 18세 되던 해에 운동주는 5년제 중학교로 편입하기 위해 평양에 있는 송실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2학기(7개월)라는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고향을 떠난 뒤 겪은 객지 생활의 외로움과 고뇌를 담아 15편의 주옥같은 시를 만들어 냈다. 그러던 1936년 송실중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를 거부하고 룡징으로 다시 돌아와 광명학원 중학부에 편입했다. 이때 북간도 엔지에서 발행하던 『가톨릭 소년』지에 용주(龍

舟)라는 필명으로 『병아리』, 『빛자루』 등 30여 편의 동요·동시를 발표하였다. 1938년 광명학원 중학부 5학년을 졸업하고 4월에 송몽규와 함께 다시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해 『조선일보』와 『소년』에 산문과 동요를 발표하였다. 그 유명한 「별 헤는 밤」과 「서시」도 이때 탄생한 것이다. 운동주의 28년 생애에서 이 4년간의 연희전문학교 시절이 가장 풍요로우면서도 자유로웠던 시기였다. 운동주는 “연희전문학교가 민족적인 정서를 살리기에 가장 알맞은 배움터였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연희전문학교 시절 후배인 장덕순 교수에 의하면 “그는 암전하고 말이 적은 외유내강형의 성격이었으나, 지조와 의지는 감히 누구도 어찌지 못하게 강하였다”고 한다. 운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2월 도쿄 릿쿄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해 한 학기를 마치고, 그해 가을 교토의 도시사대학교 영문과로 다시 전학하는 등 만 3년을 일본에서 살았다. 그러던 1943년 독립운동 혐의를 받고 송몽규와 함께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운동주는 모진 고문을 받다 1945년 2월 16일 28세의 나이로 옥사하였다.

운동주, 송몽규가 명동소학교 시절 만든 문예지 『새명동』 복간호



운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1948)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제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心志)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평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제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운동주, 『초 한 대』(1934. 12. 24.)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과 의미

국호의 유래와 변천사

근대 이전의 조선은 중국의 천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 그 뒤 갑신정변(1884), 갑오개혁(1894) 당시에 조선은 국왕의 지위를 황제로 높이고자, 국호를 '대조선왕국'에서 '대조선제국'으로 바꾸려 하였다. 하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과의 사대 관계가 끊어졌다. 이를 계기로 1896년 1월 조선은 독자적으로 '건양' 연호를 사용하고 국왕을 '황제'로 격상시키려 했으나 아관파천으로 중단되었다.

1897년 2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부터 개화파-수구파 할 것 없이 '칭제 건원'을 상소하였다. 이에 힘입어 1897년 8월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칭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국호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고종은 단군과 기자 이래로 강토가 나뉘어 서로 자웅을 다투다가 마한-진한-변한이 통합했다며, 국호를 '조선'에서 '한(韓)'으로 고쳐 대한(大韓)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다음날 '대한제국(大韓帝國)'을 국호로 공식 선포하였다. 당시 '대(大)'는 '크다', '전부', '모두'라는 뜻으로 관용 접두사로 사용되었고, '제국'은 국가의 통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니 실제 국호는 '한'이었다.

하지만 1910년 8월, 대한제국은 10여 년 만에 망하였다. 주권을 일제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로부터 9년이 흘러 3·1운동이 전국을 뒤흔들었고, 한성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와 연해주 등지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이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이때 국호가 '제(帝)'에서 '민(民)'으로 한 자만 바뀌었다. 황제국에서 주권재민의 공화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후 27년

'대한민국' 국민 중, 우리나라 국호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는 이가 드물다. 8월 15일 정부 수립 73주년을 맞아 국호의 탄생 과정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호가 대한제국에서 비롯되었으니 그때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굴곡이 있었지만, 한민족 구성원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

35년 동안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다. 한반도는 미소 간의 냉전으로 남북으로 갈렸고, 남쪽은 미군에 북쪽은 소련군에 점령당하였다.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구를 비롯한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어 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점점 힘을 잃고 말았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 발표 이후 한반도는 미소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찬탁과 반탁으로 남과 북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양자 간의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결국 1948년 2월 한반도 문제는 UN으로 넘어갔고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 시행이 결의되자 김구는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하여 분단을 막아보고자 하였지만 허사였다.

국호 '대한민국'의 탄생

1948년 5월 남한만의 총선거가 시행되어 제헌국회가 출범하면서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때 제정된 헌법의 제1장 총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국호 문제였다. 이를 두고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자손만대에 전할 존엄한 국체의 표상이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이다. 결국 표결로서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였다.

'대한'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삼일운동 이후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광복 운동을 계속하였다. 또 개원식을 거행할 때 의장 식사에도 '대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오려면 과거의 '대한국'이라는 국호래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주효하였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국회의원 상당수는 고려공화국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새 국가를 상징하는 국호로는 '고려'가 타당하며 세계에서 '코리아'로 알려진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용하는 것에 여러 의원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국호 사용을 지지하면서 만약 다른 국호를 사용한다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대한'의 간판을 들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 분열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 우려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 것에 '민국'과 '민주공화국'이 중복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결국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대한민국' 국호로 최종 결정되었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KOREA'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김구는 "대한민국 국호를 어떠한 사람이 계승한다고 할지라도 세계 각국에서 승인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조건이란 임시정부가 이를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남북총선거를 통한 남북통일 정부가 아닌 이상 반쪽 정부로서는 계승할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방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 독립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였고, 북한에서는 그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제 왕권 사회에서 비롯되었지만,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민주공화제로 바뀌어 유지되었고, 광복 이후 독립 국가의 국호로 정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쓰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897



대한제국의 '대한국새'

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인'

2011



대한민국의 '국새'

수원 산루리의 독립 영웅을

추모하며

이선경 순국 100주년 테마전

수원박물관은 개관 이래로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밝혀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는 데 힘써왔다. 올해는 독립운동가 이선경이 수원 구국민단 사건으로 체포되어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선경을 비롯해 독립을 위해 투신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생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맞바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도록 하자.

기간 : 2021. 10. 3. 까지
장 소 : 수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문의 : 031-228-4150
참 고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시간대별 관람 인원 제한, 매주 월요일 휴관



이번 테마전을 기획하게 된 취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올해는 수원 구국민단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이선경이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국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전시는 이선경을 비롯한 산루리 출신의 독립영웅들을 함께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테마전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및 관련 유물·자료 등 100여 점을 공개하여 산루리와 신작로 일대 등 일제강점기 당시 수원의 모습을 보여 주고,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독립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원 중에서도 산루리가 대표 지역이 된 이유가 있나요?

수원 산루리(현 중동·영동·교동 일대)는 수원화성의 팔달문 밖

에 있던 마을로,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수원에서 가장 먼저 침탈을 받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살았고 실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산루리 지역 사람들은 일제의 수탈과 폭압적인 행동에 분연히 일어나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수원 독립운동의 산실이라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산루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사진을 비교해보면서 일제 침탈의 근거지가 되었던 산루리의 아픈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루리는 오늘날 수원 중동과 교동을 비롯한 팔달문 밖 서남쪽 지역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산루동'으로 이름 붙었던 마을의 역사 자료부터,

일제강점기에 수원역부터 향교에 이르는 산루리 일대가 개발되어가는 모습, 산루리에서 만들어진 술병 등 유물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외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살펴볼 수 있나요?

일제의 무고한 침탈을 목격하며 자란 청년들은 나라 잃은 슬픔을 독립운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민족대표 48인으로 선정된 독립운동가 김세환부터, 1930년 수원소년동맹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김장성에 이르기까지, 산루리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현재 서훈을 받은 산루리 독립운동가는 10여 명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업적을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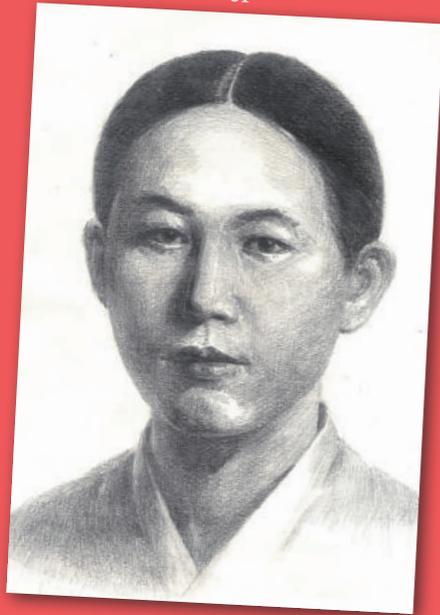
1920년 9월 유관순이 순국하고 난 지 7개월이 지나, 1921년 4월 21일에는 이선경이 순국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그 외의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또한 경기여고를 퇴학당한 상태였고,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어 집에서 순국하였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모두 함께 찾아 나서야 할 일입니다. 뚜렷한 역사적 궤적을 보여주는 순국열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뜨거운 조국애를 널리 현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EXT 꽃다운 나이에 지고 만 독립 영웅들의 이야기

꽃다운 나이에 지고 만 독립 영웅들

01



- 1 이선경
- 2 산루리 전경
- 3 구국민단사건 판결문(1921)
- 4 '동아일보' 구국민단의 공판 기사(1921)
- 5 김세환
- 6 김장성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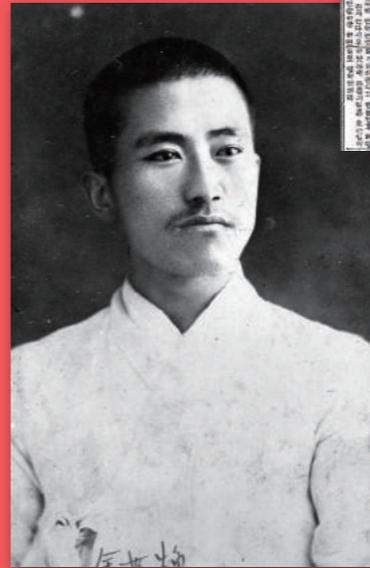
02



03



05



04



06



이선경, 19세의 나이로 외로이 순국하다

수원 중동, 영동, 교동 등 팔달문 밖 마을을 조선시대에는 '산루동'이라고 불렀다. 또한 수원화성 화양루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다락골'로도 불리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배와 함께 수원의 전통마을은 그들의 편의대로 재편되면서 '산루리'가 되었다.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시달리며 살아온 산루리 사람들은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선경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이선경은 산루리에서 태어나 수원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숙명여학교, 경기여자보통학교를 입학해서 서울로 통학을 하였다. 이때 서울로 통학하면서 만난 동네 학생 박성태, 최문순 등과 함께 '구국민단'을 결성하고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박성태가 단장을 맡고, 이선경, 최문순, 임효정 등의 여학생들이 함

게했다. 구국민단은 1920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하던 『독립신문』과 『애국창가』를 마을에 배포함으로써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을 구호하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

그러던 중 이선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십자 간호부가 되기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독립자금을 마련해 임시정부로 떠나려고 경성에 머물러있던 찰나에 일제로부터 발각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선경이 당시 투옥된 곳은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의 여감방이었다. 이곳은 유관순도 갇혀있었던 곳으로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곳이다. 이선경도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1921년 4월 1일자 '구국민단 공판'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다른 구국민단 단원들이 재판받고 있을 때 이선경만 혼자 결석재판을 받

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을 거라고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선경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자 일제는 급하게 그를 석방하였다. 서대문 형무소를 나온 이선경은 수원에 있는 오빠 이완성의 집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석방 9일 만에 순국하였다. 1921년 4월 21일, 그의 나이 만 19세였다.

3·1운동을 기폭제로 들불처럼 번진 독립운동

일제의 식민지배에 억눌려 있던 수원 사람들의 분노는 3·1운동을 기폭제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3·1운동 이후에도 학생들의 비밀결사 조직, 각종 사회단체들의 저항과 노동자 및 농민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으로 수원의 3·1운동을 주도한 김세환,

석방 9일 만에 순국하였다.
1921년 4월 21일,
그의 나이 만 19세였다

김세환을 도와 3·1운동을 이끌고 수원 신간회 및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김노적, 구국민단 단장으로 활약한 박성태, 수원 곳곳에 격문을 붙여 조국의 독립의지를 고취시킨 김장성, 사회주의 독립운동으로 세 번이나 검거되었던 차계영, 총독 암살을 계획한 조득렬, 1902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미주 독립운동에 나선 이병익 등 수많은 산루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폭거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자유·평등을 향한 끝없는 투쟁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 일으킨 투쟁이었다. 혁명 당시 그리고 혁명 이후에도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은 끊이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끝없는 투쟁과 함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간의 무한한 희망을 탄생시켰다.

재정 위기와 프랑스 혁명의 시작

프랑스 혁명 전 프랑스가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위기였다. 프랑스는 17세기뿐 아니라 18세기까지 전쟁에 많은 돈을 쏟았고, 혁명 전 마지막으로 참전한 미국의 독립전쟁은 재정 적자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 독립혁명 이후 더욱 악화된 재정 적자는 조세 제도의 개혁 없이 증세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었다. 1787년, 루이16세는 면세 혜택을 누리던 두 특권 신분인 성직자와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면세 특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성직자와 귀족은 루이16세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1788년 한발 물러난 루이16세는 재정 및 조세 제도 개혁을 위해 1614년 이래 열리지 않았던 총신분회(삼부회)를 1789년 5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789년 5월 5일 총신분회가 개최되었고,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인 평민 대표가 모였다. 그러나 세 신분의 대표들은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제1신분과 제2신분은 분리 심의와 신분별 투표를 주장했고, 제3신분은 공동 심의와 인원별 투표를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성직자와 귀족 대표를 제외한 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며 6월 17일에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 루이16세와 성직자 및 귀족 대표들은 회의장을 봉쇄하여 평민 대표들의 결집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평민 대표들은 6월 20일 베르사유 궁전 앞의 정구장으로 장소를 옮겨, 앞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을 굳건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평민 대표들이 주도하는 개혁이 진행 중일 때, 시민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없었다.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킬리리 궁전 앞에서 시위를 하던 파리 시민들에게 궁전수비대가 발포를 했고, 시민들은 무장을 결심하였다. 앙발리드에서 무기를 챙긴 시민들은 7월 14일에 바스티유 요새를 습격했고, 무력 충돌 끝에 요새를 함락시켰다. 이제 시민들은 혁명의 주요 동력으로서 국민의회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국민의회는 프랑스를 쇠신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구체제의 특권을 폐지했고(8. 4~11.),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8. 26.)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준비한 끝에 1791년 프랑스에 첫 번째 헌법을 안겨주었다.

프랑스 혁명의 위기

국민의회가 이어가던 프랑스의 쇠신에는 장애물이 있었다. 구체제의 재정 위기에서 시작된 적자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유 재산을 매각하기도 했지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아시냐'라는 화폐를 발행했지만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불러왔다. 여기에 외국의 위협과 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왕실의 권력을 되찾고 싶었던 루이 16세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 서라도 혁명을 진압하려고 하였고, 1791년 6월 오스트리아 군대를 이용해 파리를 탈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싹트고, 1792년 4월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자크 루이 다비드, <테니스코트의 서약>(1791)



그러나 프랑스는 계속 패배했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우왕좌왕하던 의회에 자신들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1792년 8월 10일 킬리리 궁전을 습격한 뒤 의회를 압박하여 왕권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9월 21일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프랑스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어 1793년 1월 21일 루이16세가 처형당하고, 10월에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처형당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프랑스 국왕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에 맞서기 시작했다.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의회는 1793년에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징집령을 내리면서 전쟁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리고 1793년 가을, 혁명의 적들에게 공포를 보여주어 위기에 처한 프랑스와 혁명을 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포정'을 등장시켰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반혁명 혐의자들을 단두대에서 처형시키기도 했고, 예외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혐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법과 민중운동에 대한 억압 등은 공포정치 반대파들의 피로도를 높였다. 결국 1794년 7월 27일, 당시 정국을 이끌고 있던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일파가 처형당하게 되는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났다. 이후 국민공회는 1년 동안의 준비 끝에 1795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총재정부를 탄생시켰다.

총재정부는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꾀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테르미도르 이후 통제 경제의 폐지는 가파른 물가 인상을 불러왔다. 총재정부는 1796년에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재정 적자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정복전쟁을 통한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정치적으로도 총재정부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안정과 거리가 멀었다.

1798년부터 1799년까지, 프랑스는 다시 결성된 대프랑스 동맹군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프랑스군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러 정파 사이의 갈등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되었다. 그해 11월 9일, 당시 최고 권력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시에예스는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급히 돌아온 나폴레옹을 끌어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 이로써통령정부가 탄생했고, 프랑스 혁명은 막을 내렸다.

프랑스 혁명이 남긴 것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에서 억압받고 있던 프랑스인들이 자유



루이16세의 처형, 작자 미상(1793)



프랑수아 부쇼의 <500인위원회에서 보나파르트 장군>(1840)

와 평등을 얻기 위해 일으킨 투쟁이었다. 물론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은 프랑스 혁명이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정치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체제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투쟁과 무한한 희망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울릉도·독도를 만나다

2021년 독립기념관에서 실시하는 울릉도·독도 답사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여부에 따라 일정이 불투명해지곤 했다. 하지만 독도 입성의 행운은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발을 디딜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났겠는가. 이번 울릉도·독도 답사 참가 대학생들은 3대가 덕을 잘 쌓은 것이 틀림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견인해갈 젊은 미래 역군들의 울릉도·독도 가는 길을 따라가 본다.



이소민 울릉군문화관광해설사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 이소민 울릉군문화관광해설사

울릉도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동해에는 다른 섬들이 없죠. 망망대해 한 가운데 꽃으로 피어난 울릉도는 '동해의 수련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염이 적은 곳이기도 합니다.

울릉도에 천연기념물이 있다면?

울릉도에는 귀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울릉도 천연기념물 제50호로 지정된 솔송나무가 있습니다. 일제는 울릉도 솔송나무를 많이 벌목해갔죠. 주목나무가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이라고 하듯이 울릉도 솔송나무는 못이 들어가지 않는 철목으로 불립니다. 일제는 솔송나무 대신 삼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삼나무는 물러서 당시 가구 용이나 마룻바닥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방법은?

울릉도 개발이 난개발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좋은 곳으로 개발을 한다면 전 세계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릉도 자체가 물탱크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섬을 살펴봐도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울창한 숲은 없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즐기러 오는 곳, 자연 그대로에서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울릉도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이면 독도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독립기념관의 대학생 울릉도·독도 답사 취지는?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장하며 국제적인 영토분쟁지역으로 이슈화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미래에 교사와 역사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인식의 확산, 올바른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 답사를 기획하였습니다.

◆ 울릉도·독도 답사 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답사 대상은 미래에 역사학자가 되거나 역사 교사 또는 초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일반 대학교 역사학 또는 역사교육과 재학 중인 학생과 교육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참가 신청자들에게 참가 동기와 답사지 중 가장 관심 있는 곳과 그 이유, 그리고 답사 경험의 장래 활용 계획을 담은 답사 참가 신청서를 받아서 인적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은 답사 참가 의지, 진정성, 답사지에 대한 관심도, 활용 계획 및 기념 방법의 구체성·참신성·적용 가능성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38명의 답사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답사 전 교육



장마로 인해 답사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비는 우리에게 물이랑을 일으키며 만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보이지 않았을 울릉도·독도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흥주(서울여자대학교)

이어폰 고장으로 해설을 못 듣고 있던 내게 이어폰 한쪽을 나눠준 친구. 그런 나에게 자신의 수신기를 내어주고 독도의 역사를 자세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지금도 생생한, 독도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의 표정. 이번 답사에서 저는 울릉도와 독도뿐만이 아닌 지켜야 할 역사의 한순간을 함께 거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수현(영남대학교)

울릉도 동남쪽



출발 전 걱정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발길을 허락해준 울릉도와 독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함께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 3박 4일 동안의 울릉도·독도 곳곳에서의 추억을 바탕으로, 역사와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류호준(충신대학교)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쉽게 갈 수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땅 독도를 밟을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앞으로도 독도 답사를 통해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학생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려주는 올바른 지표가 되어 주십시오.

고해욱(전남대학교)

비록 답사 내내 비가 내렸지만 유쾌한 답사원들 덕분에 웃으며 즐거웠습니다. 모두가 덕을 많이 쌓은 덕분에 그토록 염원하던 독도에 발을 디뎠고, 제 눈과 마음에도 가득 담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꿈을 꾸는 것 같고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경북대학교)



답사 전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독도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답사 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땅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독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독도는 민족의 애환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최지원(국민대학교)

뱃길따라

이번 답사에서의 만남은 반가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을 뵈고 그 반가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울릉도의 기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은 식물 하나 바위 하나에 담겨 역사를 품은 채 파도처럼 가슴으로 밀려들었습니다. 3박 4일이라는 기간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 반갑게 역사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김주연(동아대학교)



유화로 그린 독도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버킷리스트에서 시작된 답사였습니다. 독도에 처음 가면 눈물이 핑 돈다고 해서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진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동단 독도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마주한 것만큼 와닿는 감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독도야, 너는 우리 땅이 데이"라는 사투리 섞인 다른 관광객의 말을 듣고 난 뒤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답사 내내 마르지 않았습니다.

장재은(한국교원대학교)

안 좋은 날씨지만 북동풍이 불면 전망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안고 떠난 독도. 때마침 동풍이 불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무언가에 홀린 듯 처음 마주한 독도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는 점에서 한 번,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를 수호하는 독도경비대에 두 번, 아름다운 독도의 자연환경에 세 번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수현(서울여자대학교)



이백리

01

독립기념관, 단국대학교·(주)노루페인트와 공동 협력으로 벽화 조성

문의: 고객홍보부 임석민 주임 ☎041-560-0354



독립기념관은 지난 7월 단국대학교, (주)노루페인트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독립기념관 주출입구 다리에 벽화를 조성하였다. 이번 벽화 조성은 관람객을 위한 시설 보수 및 경관을 개선하고, 민·관·기업 공동 협력을 통해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진행한 것이다. 벽화 제작은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주)노루페인트 후원으로 완성하였다. 특히 단국대학교 학생들은 재능

기부를 통한 벽화 작업 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노루페인트는 공익적인 벽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도에 독립기념관에서 실시한 '벽화가 있는 행복한 쉼터 조성'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주출입구 다리 벽화 제작을 위해 다시 힘을 모았다.

02

2021 독립기념관 관람·교육 후기 공모

문의: 교육부 유지현 주임 ☎041-560-0261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기념관 관람·교육 후기를 공모합니다.



- 2차 모집 : 6월 1일 ~ 8월 31일
- 참가 대상 : 모든 관람객, 교육 참가자
- 입상 경품 : 온라인 상품권 3만 원(접수 기간별 100명)
- 분 량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홈페이지 교육·행사 > 공모전 > 관람·교육 후기 공모 > 온라인 접수
- 유의 사항 : 타인 또는 자기 표절 또는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0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시관별 관람 인원 제한 안내

전시관명	시간당 관람 가능 인원 (매시 정각 기준)
제1전시관	290명
제2전시관	200명
제2전시관	120명
제4전시관	120명
제5전시관	200명
제6전시관	200명
제7전시관(특별기획실)	19명
홍보관	50명

04

체계적인 청각장애 아동 교육 지원 (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문의: 교육부 이연의 주임 ☎041-560-0528



독립기념관은 지난 7월 21일 (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사장 이지은)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청각장애 아동 및 가족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각장애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8년과 2020년에 청각장애 아동 교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기념관과 한국난청인교육협회가 난청아동 교육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애인의 날 등 장애 관련 기념일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정기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민족의식을 높여주는 교육기관으로서 청각장애 아동 및 가족이 독립운동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05

2021년 시민교양강좌 개최 국내 사회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

문의: 학술연구부 남기현 연구위원 ☎041-560-0403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02-360-8598



독립기념관은 2021년 시민교양강좌를 한국역사연구회, (주)역사공장과 공동 기획,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시민교양강좌 주제는 '국내 사회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로 4명의 삶을 추적한다. 지난 2019년 '3·1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 2020년 '항일무장투쟁과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바 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대중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제강은 인하대학교 정종현 교수가 간호사로서 근우회 집행

위원장을 맡았던 정종명의 삶과 여정에 대해서 강의하였고, 제2강은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가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강은 양지혜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근대교육사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평원고무농장 여공이며 노동운동가였던 강주룡의 삶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제4강은 8월에 양진아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연구교수가 한국 최초의 여기자였던 최은희의 삶을 조망할 계획이다. 강연은 8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웹엑스(Webex)로 변경해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QUIZ

이번 호 「독립기념관」을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꼼꼼히 읽다 보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

한때 '태극 문양의 태극기가 중국 것이다'라고 헛소문이 퍼진 적이 있는데, 이는 일제가 퍼뜨린 태극기 ○○○ 때문이었다. 태극 문양의 기원은 신라 682의 경주 용당리에 감은사(현재는 감은사지)의 금당 석재에 새겨진 신비의 문양이란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6~9페이지 참조)

2

태극기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 '○○○○○'이다. 그도 그럴 것이 1882년 9월에 제작해 사용하였다는 최초의 태극기 실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금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10~13페이지 참조)

퀴즈에 응모해 주세요.

8월 23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5명을 추첨해 온라인 문화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엽서 보내실 곳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월간 독립기념관 담당자 앞
※ 이름, 연락처 기재

퀴즈 응모는 아래 QR코드로 접속해
웹진-독자이벤트에서도 가능합니다.



EVENT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아라!

월간 「독립기념관」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2021년 독립기념관 웹진에서는 '어쩌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호에는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8, 15, 33, 76, 100번째로 입장한 분들께 상품권(1만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세요.



지난 호 퀴즈 정답

- 야구대회
- 무궁화

지난 호 퀴즈 당첨자

강구권, 송윤정, 이단비
조대연, 황운성



월간 「독립기념관」
무료 구독 신청 방법

전 화 | 041) 560-0244
E - mail | sunny@i815.or.kr

8월에 수강하기 좋은 독립기념관 온라인 무료 직무연수



직무연수 과정	차시	대상	운영 플랫폼
독립운동 현장 읽기 (구국계몽운동)	각 15차시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천재교육 원격연수원 'T-셀파' http://edu.tsherpa.co.kr
독립운동 현장 읽기 (의병전쟁)			



직무연수 과정	차시	대상	운영 플랫폼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21차시	교원 및 일반 국민	중앙교육연수원 통합교육연수시스템 http://www.neti.go.kr

※문의 : 교육부 김중문 학예연구사(041-560-0263)